

# 전파관리소 ‘불법 감청’ 불감증 비난 확산

### 국회·시민단체·민변 등 엄단 한목소리

### 관리소측 “법령정비·직원 준법교육 공감”

국민을 상대로 수년째 관행적으로 해온 전파관리소의 ‘불법 감청·영상 수집’ 파문이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으로 확산하고 있다. 특히 전파관리소가 보유한 장비는 모델이나 화장실 등에 설치한 몰래카메라의 영상과 대화를 쉽게 가로챌 수 있는 것으로 확인돼 시민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지난 25일 ‘테러방지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 저지를 위해 열린 ‘무제한 토론’에 나선 자리에서 “광주전파관리소가 전파감시 업무 중 원거리에서 영장도 없이 사기도박단의 영상과 대화를 수집했다”는 광주일보 보도를

인용하면서 “헌행법이 엄연히 통제하고 있지만 그런 일이 관행적으로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불법 주파수를 탐지하는 전파관리소, 곳곳에 설치된 CCTV를 통제하는 통제소 등의 사생활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관들이 절차의 민주성을 지키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리라 생각된다”며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은 법률의 절차성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광주경실련)도 성명을 통해 “국가기관인 전파관리소가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일반 시민들의 대화내용과 영상을 수집할 수 있다

는 것을 그대로 보여줬다”고 지적한 뒤 “이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견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나 이에 대한 통제나 감시 활동도 미약해 우려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도 전파법과 전파관리소의 업무 처리에 대해 문제를 지적했다.

임선숙 전 민변 광주지부장은 “민변은 전파법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많은 독소조항이 많다고 과거부터 꾸준히 지적해왔다”면서 “통신비밀보호법, 전파법, 전파법 시행령 및 중앙전파관리소 예규 등 전파관리소 측이 근거로 제시한 어떤 규정에서도 불법 감청을 정당화할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전파관리소가 수년간 영장도 없이 원거리에서 수집한 대화와 영상은

사기도박단에 국한됐을 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모델 객실이나 화장실 등에 설치된 무선 몰래카메라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다 전파관리소 측이 이를 들여다보고 수집할 장비 역시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파관리소 측은 “무선 몰래카메라의 경우 보유한 장비로 들여다볼 수는 있지만, 근무 과정에서 직접 모델·화장실의 몰래카메라를 실제 본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광주전파관리소 관계자는 “불법 감청 논란과 처벌 우려에 따라 직원들의 업무 수행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며 “직원들도 이번 기회에 전파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준법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탕” 총소리 ... 황룡강에 새가 안와요

### 수렵철 엽사들 쫓사냥

### 원앙·오리·왜가리 등 사라져

“엽사들 때문에 황룡강에 새들이 안 옵니다.”

지난 24일 오후 광주시 광산구 임곡동 임곡교 부근. 길이 1m에 달하는 사냥용 총기를 든 엽사들이 3~4명씩 무리지어 황룡강변을 예의주시하다 ‘탕’ 하는 소리와 함께 총기를 발사했다.

엽사들은 매년 겨울 유해조수로 지정된 ‘꿩’을 잡는다는 이유로 자치구로부터 허가를 받아 이곳에서 총기를 사용하고 있다. 유해동물 포획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엽사들로 인해 최근 몇 년 사이 황룡강을 찾는 새들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김홍숙 황룡강 생태환경문화 지킴이는 “2~3년 전만 하더라도 이맘때쯤이면 임곡교 부근을 찾는 원앙과 오리, 백로, 왜가리 등 새가 200~300마리에

달했는데, 매년 겨울 엽사들이 총을 쏘는 탓에 새들이 더 이상 황룡강을 찾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합법을 가장한 밀렵이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 잡을 수 있는 동물은 멧돼지, 고라니, 꿩, 까치, 비둘기 등이다.

김씨는 “황룡강변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없는 지역이다. 꿩만 잡는다고 하지만 산에 사는 꿩이 강까지 내려올 리도 만무하다”며 “주변에 탄피가 수도북한 것으로 보서는 얼마나 많은 새들이 피해를 보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이유는 자치구가 포획 구역으로 활동하는 엽사들로 인해 최근 몇 년 사이 황룡강을 찾는 새들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김홍숙 황룡강 생태환경문화 지킴이는 “2~3년 전만 하더라도 이맘때쯤이면 임곡교 부근을 찾는 원앙과 오리, 백로, 왜가리 등 새가 200~300마리에

/김경민기자 kki@

# 살인 부른 알코올 중독

### 광주서 40대 남성이 여인숙 여주인 살해 후 성폭행

### 병원 입원 중 알게된 동료 때려 숨지게 한 50대 영장

70대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되고,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때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두 사람은 모두 알코올중독 증세로 알코올병원에서 수차례 치료를 받아온 이들로, 범행 당시에도 술에 만취해 있었다.

광주북부경찰은 28일 돈을 빼앗기 위해 여인숙 여주인을 살해하고, 상점 주인들을 흉기로 위협해 다치게 한 혐의(살인·강도상해·사체오류 등)로 한모(43)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25일 오전 9시께 광주시 서구 양동 한 여인숙에서 업주 A(여·72)씨를 흉기로 찌르고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같은 날 새벽 3시께 광주시 북구 한 사찰에서 지인 B(55)씨를 테이프로 묶은 뒤 흉기로 위협해 현금 8000원을 빼앗아 달아났고, 이어 오전 6시16분께에는 북구 우산동 한 철물점에 침입해 주인(여·57) 등에게 상해를 입힌 뒤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알코올중독으로 알코올 병원과 직업전문학교 기숙사를 오가며 생활해온 한씨는 지난 19일 병원에서 퇴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씨는 서구 한 알코올 전문병원에서 알고 지낸 지인과 전날 오후부터 직업전문학교 기숙사 등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으며, 25일 새벽 기숙사를 나와 돈을 마련할 목적으로 B씨의 사찰로 향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한씨가 술값 등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강도 행각을 벌이다가 급기야는 술기운에 살인까지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살인을 저지른 후에도 술을 사서 여관에 투숙했다”고 말했다.

광주서부경찰도 알코올중독 치료병원에서 알게 된 지인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임모(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임씨는 지난 24일 오후 7시50분께 광주시 서구 S0파트 김모(54)씨의 집에서 시비를 벌이던 중 이모(54)씨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남구의 한 알코올중독 치료병원에서 임씨를 치료받다가 최근 잇따라 퇴원했던 이씨는 3명은 이날 김씨의 집에 모여 술판을 벌이고 있었다.

임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진 이씨가) 매일 술을 마시자는 전화를 걸어와 왜 그렇게 귀찮게 하느냐고 따졌는데, 이씨가 되레 큰소리치고 맞서자 화끈하게 주먹을 휘두르고는 집으로 돌아갔다. 이씨가 숨진 사실은 미처 몰랐다”고 진술했다.

아파트에 쓰러져 있던 이씨는 지난 27일 오후 5시께 수도관에서 일을 마치고 모처럼 집에 내려온 김씨의 아내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신고를 받은 직후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임씨를 긴급체포했다. 집주인 김씨의 폭행 가담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세월호 감쌀 사각 펜스

세월호를 통째로 3m 높이의 사각 펜스에 가두는 작업이 3월 한 달간 진행된다. 해양수산부는 중국 상하이해비지와 함께 유실방지 방안을 검토해 세월호 주변으로 가로 200m, 세로 160m, 높이 3m의 철제펜스를 설치하기로 했다. 세월호를 들어올릴 때 미수습자 유실을 원천봉쇄하려는 조치이며 세계적으로 처음 시도되는 작업이다. /연합뉴스

## 전국대회 참가 고교 농구 유망주 심장마비 사망

고교 진학을 앞둔 농구 유망주가 고교 대표로 전국 대회에 출전했다가 심장마비로 숨졌다.

28일 광주시교육청과 유족에 따르면 광주의 한 여고에 진학을 앞둔 A양이 경남 사천에서 열린 제53회 춘계 전국 남녀중고 농구연맹전에 출전했다가 지난 22일 숙소에서 쉬던 중 심장마비로 숨졌다.

A양은 춘계농구연맹전 여고부에 출전해 전날까지 4경기를 뛰었다. 이날은 경기

가 없어 숙소에서 쉬고 있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양의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실시했다.

유족 측은 “중학생이었던 지난해 말부터 진학 예정 여고에서 훈련을 했고, 고교 진학 전인데도 여고 대표로 출전시켰다. 체력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너무 무리해 사고가 발생한 것 아니겠느냐”며 운동부 관리와 운영 문제를 제기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완도선적 어선 제주서 침몰

### 선장·선원 2명 실종

27일 오전 8시52분께 제주시 추자도 신양항 서지머리 앞 해상에서 완도 선적 통발어선 0호(7.93t)가 뒤집혀 있는 것을 낚시꾼이 발견해 제주해양경비안전서에 신

고했다.

지난 26일 오전 8시29분께 완도에서 출항한 이 어선에는 선장 송모(57)씨와 선원 엄모(56)씨 등 2명이 탄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수색 이틀째인 28일까지 두 사람 모두 발견되지 않고 있다. 해경이 인양한 이 어선은 선미와 선수가 반파된 채 들로 나뉘었고, 스크루도 많이 부서져 있었다.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 차량 훔쳐 타고 다니다 경찰에 들땀이 위험 ‘간 큰’ 중학생



○차량을 훔쳐 타고 다닌것도 모자라 검문에

나선 경찰관을 돌멩이로 위협한 중학생이 경찰서행.

○28일 여수경찰에 따르면 훔친 차량을 타고다니던 정모(16)군은 지난 26일 새벽 2시50분께 여수시 돌산대교 부근에서 검문에 나선 여수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

을 돌멩이로 위협한 혐의.

○경찰 관계자는 “정군은 시동이 꺼져 있는 차량만을 끌러 훔치는 수법으로 그동안 4대를 훔쳤다”며 “훔친 차량을 타고 다니다가 경찰관을 보자 어린 마음에 야산으로 달아나면서 돌멩이를 들고 반항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kwangju.co.kr

# 구례, 지리산 온천지구내, 모텔

- 전남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32-1번지
- 대지 573평, 건물 719평, 지하 1층 지상 4층, 객실 58개
- 1층- 음식점 / 숙박시설, 2~4층 - 숙박시설
- 지리산 온천지구 내 송원리조트 바로 앞
- 현재 휴업상태, 주위에 매매물건 없음
- 관광특구로 모든업종 개발가능
- 게스트하우스, 수련원, 연수원, 요양원 등등 적합
- 시세 / 감정가 - 15억
- 매매 - 10억 3천만원
- 융자 - 6억 3천만원 포함
- 법인체 인수가능 (이전비 없음)

**리모델링 후 (3억 정도 투자)**

**연 3억원 이상 순수익 가**

**주인직매 H. 010-3605-5000**

- 광주 서구 금호동 243-6번지
- 서광병원 맞은편 4거리 코너
- 7층건물 중 701호(7층전체) 130평(실평 89평)
- 대형주차장, 4면유리, 전망최고
- 감정 / 시세 - 7억
- 매매 - 5억 6천만원
- 융자 - 3억 6천만원 포함
- 현재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3백만원 임대중

**대단위 APT 밀집지역**

## 근린상가

**주인직매 H. 010-3605-5000**

-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사무실 전용
- 20층 중 20층
- 153평, 76평, 38평
- 대형주차장 완비
- 전망최고, 관리비 저렴
- 매매-평당 3백만원

**공동주택개환영**  
H. 010-3605-5000